『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丁 彰 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內容提要(Abstract)

本论文就『温病条辨』的编写过程及其学术特徵进行探究，得到如下结论：『温病条辨』乃为吴鞠通41岁时，也就是在1798年开始起笔，至吴氏56岁，即1813年成书，堪称温病学最早的专著. 吴氏的学术思想，源於『内经』- 仲景的『伤寒论』- 叶天士的『临证指南医案』等，吸收了其中的精髓. 吴鞠通在『温病条辨』中，将温病各分其类，系统整理出各自的概念，且进一步确立了纵向综合辨证之方法，为现代温病学的成立奠定了基础.

关键词(Keywords)：『温病条辨』，吴鞠通，三焦辨证，温病学

Ⅰ. 序 論

溫病은 溫邪로 因하여 誘發된 發熱이 主症인 다종의 急性外感熱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1] 이러한 溫病의 發生, 발전 규율과 그 治療 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溫病學이다. 溫病學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중국 淸代에 성립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온병학 이론을 외감열성병 뿐만아니라 현대인의 각종 成人病에도 폭넓게 應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기름진 飮食物을 많이 攝取하면서 오는 비만, 담결석, 협심증 등 각종 濕熱性 성인병에 많이 應用하고 있다.

溫病學 관련 주요 서적으로 葉天士의 『溫熱論』, 吳又可의 『溫疫論』, 薛生白의 『濕熱病篇』, 王孟英의 『溫熱經緯』, 吳鞠通의 『溫病條辨』 등이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溫病條辨』을 4大醫學經典(『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溫病條辨』) 중의 하나로 취급할 정도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

『溫病條辨』은 吳鞠通이 仲景의 『傷寒論』을 본보기로 삼아, 葉天士의 醫學思想과 자기의 醫學 경험을 바탕으로 溫病에 대한 전반적인 內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溫病 전문 서적이다. 현재는 傷寒學에서 ≪傷寒論≫이 중요시되는 것만큼이나 온병학 분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 온병학의 기본틀을 세우고 이를 臨床과 접목시킨 서적으로, 온병학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자가 반드시 熟知해야 할 서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溫病學 이론이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대부분이 溫病을 단순히 傳染病을 治療하는 학문으로만 誤認하게 되었다. 실제 온병학을 연구하다보면 舌診·驗齒, 斑疹·白痦에 대한 診斷法, 淸熱·解毒·養血·祛暑·化濕 等의 治療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內容이 매우 많다. 이 같은 이론들을 정확히

* 본 연구는 慶熙大學校 2002학년도 신임교수 연구과제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李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이송실 통역, 臨床溫病學特講, 대성의학사, 2001. 15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습득하여 應用한다면 疾病 治療 방면에서 더욱 우수한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인 特徵을 簡略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溫病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국내 온병학 연구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II. 本 論

1. 著者와 저술 년도

기록[2]에 의하면 吳鞠通은 이름은 瑭, 字는 配珩, 號는 鞠通이며, 당시의 江蘇省 淮安府 山陽縣(지금의 江蘇省 淮陰市) 사람이다. 생몰연대는 『醫醫病書·三元氣候不同論』에 "予生於中元戊寅"라 했고, 朱士彦의 「吳鞠通傳」에서 "道光十六年二月卒"이라 한 것에 근거해 볼 때, 1758년에 태어나 1836년에 79세를 일기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吳鞠通은 유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과거에 뜻을 두고 儒書를 공부하였다. 19세 되던 해 부친이 사망한 이후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醫學 공부를 시작하였다. 23세 때에는 그의 조카가 溫熱病으로 사망하였다. 26세에 서울로 이사한 후 『四庫全書』 檢校 작업에 참여하면서 『溫疫論』, 『臨證指南醫案』 등을 열람하게 되었다. 36세(1793, 癸丑年)에 北京 지역에 溫疫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 때에 溫病에 대한 治療 경험을 축적한 것 같다. 41세(1798년)에 汪瑟庵(廷珍)의 적극적인 권유로 『溫病條辨』을 저술하기 시작하여, 16年만인 56세(1813년)에 완성하였다. 64세가 되던 해(1821년)에 「秋燥勝氣論」 보충하였다. 71세(1828년)에 『醫醫病書』를 저술하기 시작하여 1831년에 완성하였다. 1836년에 79세로 사망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1825년에 章虛谷이 친구를 통해 그가 쓴 「評溫病條辨」에 대한 논평을 부탁했다는 사실이다. 『醫門捧喝』[3]에 기재된 內容에 따르면, 吳鞠通은 이에 대해 끝내 회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一說[4]에는 吳鞠通이 이에 대해 논평을 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저술 동기 및 과정

1) 저술 동기

吳鞠通이 溫病條辨을 저술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커다란 동기가 있다.

첫째는 부친과 조카의 사망이다. 19세 때 부친이 病으로 사망하면서 속수 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 회한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醫學에 입문하게 한 직접적인 동기다.[5] 그로부터 4년 뒤 조카 巧官이 溫病에 걸렸는데, 당시 醫師들이 溫病에 대한 이해가 不足하여 결국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일은 그가 溫病에 관심을 갖게 된 하나의 요

2) 『吳鞠通醫學全書』 「吳鞠通傳」:"吳君名瑭, 字配珩, 號鞠通, 江蘇淮安府山陽縣人, (注:今爲江蘇淮安市, 屬淮陰市所轄)."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明淸中醫全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35쪽.

3) 『醫門捧喝 卷二·評溫病條辨』 139쪽 批文(章虛谷, 醫門捧喝, 대성문화사, 1989)
"是評成於嘉慶年間至道光乙酉夏初, 適吳鞠通先生到吾紹, 余將此稿, 託友請教鞠通先生, 而鞠通竟無回報, 不知其意究爲然否, 想海內不乏高明, 定有能鑑別者也. -虛谷記"

4) 吳鞠通醫學全書, 387쪽

5) 『溫病條辨·自序』: "綠瑭十九歲時, 父病年余, 至於不起, 瑭愧恨難名, 哀痛欲絶, 以爲父病不知醫, 尙復何顔立天地間, 遂購方書, 伏讀於苫塊之余. 至張長沙 "外逐榮勢, 內忘身命"之論, 因旣然棄擧子業專事方朮."(吳瑭, 『溫病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98. 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이 되었다.[6]

둘째는 『四庫全書』 刊行 작업에 참여한 일이다. 서울로 간 吳鞠通은 우연찮게 『四庫全書』 檢校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吳又可의 『溫疫論』을 접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본격적으로 溫病을 연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7]

세째는 당시 溫病 治療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溫病條辨·自序≫에 의하면, 계축년에 北京에 溫疫이 크게 유행했는데, 당시 주위 사람의 권유로 직접 溫病 治療를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溫病 치료에 대한 전문 서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溫病條辨』을 저술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8] 『溫病條辨·凡例』에 吳鞠通의 저술 동기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 책의 출판은 실로 부득이한 것이니, 지금 溫病을 治療하는 자들이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서 溫病으로 사망한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9]라고 했고, "이 책은 원래 병자의 고통을 구제하고 醫師의 병폐를 고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10]라고 하였다. 부모나 조카를 질병으로 잃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기존 醫師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도 『溫病條辨』을 저술하게 된 하나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넷째는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유다. 『溫病條辨·自序』[11]에 의하면, 계축년에 北京에 溫疫이 크게 유행했는데, 당시 주위 사람의 권유로 직접 溫病 治療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때 많은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자신감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吳鞠通이 저술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年이 지나서이다. 계축년 溫病이 유행할 당시에 이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지만 막상 집필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1798년(戊午年)에 같은 고향 사람인 汪廷珍(字瑟庵)이 다음해인 己未年에 傳染病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급히 책을 완성할 것을 强하게 촉구하였다.[12] 이것이 吳鞠通이 저술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2) 저술 과정

이제 吳鞠通이 『溫病條辨』을 저술하기 시작해서 이 책이 刊行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1798년에 吳鞠通이 저술을 시작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徵保의 序文을 보면

6) 『溫病條辨·自序』: 越四載, 猶子巧官病溫, 初起喉痺, 外科吹以冰硼散, 喉遂閉, 又遍廷諸時醫治之, 大抵不越雙解散, 人蔘敗毒散之外, 其於溫病治法, 茫乎未之聞也, 後至發黃而死. 瑭以初學, 未敢妄贊一詞, 然於是證, 亦未得其要領. 蓋張長沙悲宗族之死, 作『玉函經』, 爲後世醫學之祖, 奈『玉函』中之『卒病論』亡於兵火, 後世學者 無從倣效, 遂至各起異說, 得不償失. (『溫病條辨』, 앞의 책, 6쪽)

7) 『溫病條辨·自序』: 又越三載, 來遊京師, 檢校『四庫全書』, 得明季吳又可『溫疫論』, 觀其漢論宏闊, 實有發前人所未發, 遂專心學步焉. 細察其法, 亦不免支離駁雜, 大抵功過兩不相掩, 蓋用心良苦, 而學亦未精也. 又遍考晋唐以來諸賢漢論, 非不珠璧琳琅, 求一美備者, 蓋不可得, 其何以傳信於來茲!(『溫病條辨』, 앞의 책, 6쪽)

8) 『溫病條辨·自序』: "癸丑歲, 都下瘟疫大行, 諸友强起 瑭治之, 大抵已成坯病, 幸存活數十人. 其死於世俗之手者, 不可勝數. 嗚呼! 生民何辜不死於病而死於醫, 是有醫不若無醫也, 學醫不精, 不若不學醫也. 因有志采輯曆代名賢著述, 去其駁雜, 取其精微, 間附己意, 以及考驗, 合成一書, 名曰『溫病條辨』然未敢輕易落筆."(『溫病條辨』, 앞의 책, 6쪽)

9) 是書之出, 實出於不得已, 因世之醫溫病者, 毫無尺度, 人之死於溫病者, 不可勝紀."(『溫病條辨』, 앞의 책, 10쪽)

10) "是書原爲濟病者之苦, 醫醫士之病, 非爲獲利而然."(『溫病條辨』, 앞의 책, 10쪽)

11) "癸丑歲, 都下瘟疫大行, 諸友强起 瑭治之, 大抵已成坯病, 幸存活數十人. 其死於世俗之手者, 不可勝數."(『溫病條辨』, 앞의 책, 6쪽)

12) 『溫病條辨·自序』: "又歷六年, 至於戊午, 吾鄉汪瑟庵先生促瑭曰: 來歲己未, 濕土正化, 二氣中溫厲大行, 子盍速成是書, 或者有益於民生乎!"(『溫病條辨』, 앞의 책, 6~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嘉慶 甲子年(1804년)에 저술해 두었던 溫病治療書를 꺼내 내게 보여 준 일이 있는데, 내 그 당시 조급히 교정하고자 했던 것을 이제 펼쳐 들고 다시 疑難을 풀고 이전의 착오를 바로잡고 보니,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는 것 같았다.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십 년이 넘는 노력 끝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이름하여 "溫病條辨"이라고 한다."[13]라고 하였고, 序文의 말미에 "嘉慶癸酉(1813년) 仲秋 좋은 날 아침에 蘇完사람 愚弟 徵保는 拜하여 적는다."[14]라고 쓰여 있다. 汪廷珍은 嘉慶 十七年(1812년)에 序文을 썼고[15], 朱彬은 1811년 4月에 序文을 썼다[16]. 이상의 여러 가지 정황에 근거해 보면, 1804년에 초고가 이미 완성되었고, 1811년에는 최종 원고가 거의 완성되었으며, 그 후 교정을 거친 후 1813년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刊行된 초간본(問心堂本)에는 "凉燥"에 관한 內容은 없었다. 즉 「補秋燥勝氣論」과 "霹靂散"方에 대한 內容이 없었다. 吳鞠通은 초간본을 刊行한 이후 많은 臨床 경험을 통해 燥病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서, 이전 자신이 논한 秋燥 부분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沈目南의 논술을 참고하여 「補秋燥勝氣論」을 저술하였다.[17] 道光 15年 乙未(1835년)에 葉氏가 刊行한 판본에 처음으로 「補秋燥勝氣論」이 나타나며, 이듬해 1836년 吳鞠通의 아들과 사위에 의해 刊行된 판본에 비로소 「補秋燥勝氣論」과 "霹靂散"方에 대한 內容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18]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溫病條辨』은 吳鞠通 死後인 1836년에야 비로소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3. 學術의 淵源

吳鞠通 학술 사상의 연원은 『內經』-仲景의 『傷寒論』-葉天士의 『臨證指南醫案』로 要約할 수 있다. 徵保 역시 그의 序文에서 吳鞠通을 평가하기를, "가깝게는 葉天士를 스승으로 삼아 계승하고, 멀리는 仲景을 추종하였다. …… 처방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內經』의 이론을 따르고 仲景을 본받았다."[19]고 하였다. 『溫病條辨』에는 이외에도 吳又可, 王叔和, 劉河間. 李東垣, 王安道, 張鳳逵, 張景岳, 沈目南, 喩嘉言 등 다수의 醫家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세 醫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 內經을 重視 : "考之內經"

吳鞠通은 『內經』, 『神農本草經』, 『難經』, 『傷寒論』, 『金匱玉函經』 等을 醫學의 경전으로 규정하고, 醫學을 공부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들 경전을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학문에 뿌리가 없어 이단으로 흐르기 쉽다고 주장했다[20]. 이는 그의 尊經思想을 반영하

13) "嘉慶甲子, 出所著治溫法示余. 余向之急欲訂正者, 今乃發復析疑, ……閱十稔而后告成, 名曰『溫病條辨』"(『溫病條辨』, 앞의 책, 5쪽)

14) "嘉慶癸酉仲秋谷旦, 蘇完愚弟徵保拜書"(『溫病條辨』, 앞의 책, 5쪽)

15) "嘉慶十有七年壯月旣望, 同里愚弟汪廷珍謹序"(『溫病條辨』, 앞의 책, 3쪽)

16) "嘉慶辛未四月旣望, 寶應朱彬序"(『溫病條辨』, 앞의 책, 1쪽)

17) 『溫病條辨·補秋燥勝氣論』 : "瑭襲前人之舊故但敍燥證復氣如前. 書已告成, 竊思與『素問』燥淫所勝不合, 故雜說篇中, 特著燥論一條, 詳言正化、對化、勝氣、復氣以補之. 其於燥病勝氣之現於三焦者, 究未出方論, 乃不全之書, 心終不安. 嗣得沈目南先生『醫徵』溫熱病論, 內有秋燥一篇, 議論通達正大, 玆採而錄之於後, 間有偏勝不圓之處, 又詳辨之, 幷特補燥證勝氣治法如下."(『溫病條辨』, 앞의 책, 48쪽)

18)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明淸中醫全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93쪽

19) 徵保의 序文 : "近師承於葉氏, 而遠推踪乎仲景…… 其處方也, 一遵『內經』效法仲祖."(『溫病條辨』, 앞의 책, 5쪽)

20) 『溫病條辨·雜說·醫書亦有經子史集論』 : "『靈樞』、『素問』、『神農本經』、『難經』、『傷寒論』、『金匱玉函經』, 爲醫門之經; 而諸家註論、治驗、類案、本草、方書等, 則醫之子、史、集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것으로,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유학을 공부하면서 경전을 중시하던 학문 자세가 그대로 醫學 공부에 옮겨진 것이라 볼 수 있다.

吳鞠通은 여러 경전 중에서도 특히 『內經』을 중시하였는데, 『溫病條辨·凡例』에서도 "吳瑭은 그래서 諸賢의 精妙한 이치를 취하되 『內經』에 근거하여 따져보고 자신의 경험을 참고하여 이 책을 지었다."[21]라고 하여, 이 책이 『內經』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체제만 보아도 首卷인 「原病篇」에 『內經』 원문을 인용하여 溫病의 總綱을 논하고 있다. 『溫病條辨』은 기본적으로 上·中·下焦 三焦로 疾病을 분류하고 治療하는 三焦辨證理論을 제창하였는데, 이는 『內經』의 三焦理論을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吳鞠通이 三焦 治法으로 제시한 "上焦如羽, 中焦如衡, 下焦如權"은 『內經』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이외에도 處方의 구성 원칙을 『內經』의 문장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溫病條辨·凡例』에서도 "이 책은 각 처방의 조문 뒤에 반드시 『內經』의 어느 법을 사용했다고 注를 달아 밝혔다."[22]라고 하여,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 銀翹散方論에 "이 처방은 『內經』의 '風邪가 안에서 지나치게 盛할 때는 辛凉한 약으로 치료하되 苦甘한 약으로 보좌하고, 熱邪가 안에서 지나치게 盛하면 鹹寒한 약으로 치료하되 苦甘한 약으로 보좌한다'는 교훈을 따른 것이다."[23]라고 하였다.

2) 仲景의 法을 본받음 : "效法仲景"

吳鞠通은 『溫病條辨·凡例』에서 『溫病條辨』의 저술이 『傷寒論』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24] 또 서술 방식도 條文式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傷寒論』의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다만 『傷寒論』과 다른 점은 後人이 本旨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注를 달아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25]

내용에서도 총205條의 處方 중 仲景의 處方이 38조로 전체 처방의 약 20%를 차지한다.[26] 여기에 『金匱』의 處方까지 포함하면, 仲景의 原方이나 加減方은 전체 處方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27] 또 곳곳에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原文을 그대로 또는 조금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다. 이는 吳鞠通이 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대해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朱彬은 吳鞠通의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仲景의 깊은 뜻을 이해한 자로서, 吳鞠通은 곧 仲景의 功臣이라고 하였다.[28]

3) 葉天士의 이론을 계승, 발전 : "師承葉氏"

吳鞠通은 王安道가 비로소 溫病을 傷寒으로

也. 經細而子、史、集粗, 經純而子、史、集雜, 理固然也. 學者必不可不尊經, 不尊經則學無根柢, 或流于異端."(『溫病條辨』, 앞의 책, 171쪽)

21) "瑭故歷取諸賢精妙, 考之『內經』, 參以心得, 爲是編之作."(『溫病條辨』, 앞의 책, 9쪽)

22) "本論於各方條下, 必注明系用『內經』何法" (앞의 책, 11쪽)

23) "本方謹遵『內經』'風淫於內, 治以辛凉, 佐以苦甘;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之訓." (앞의 책, 17쪽)

24) 『溫病條辨·凡例』: "是書雖爲溫病而設, 實可羽翼傷寒."(『溫病條辨』, 앞의 책, 9쪽)

25) 『溫病條辨·凡例』 : "是書倣仲景 『傷寒論』作法, 文尙簡要, 便於記誦. 又恐簡則不明, 一切漢論, 番於分注注明, 俾網擧目張, 一見了然, 幷免後人妄注, 致失本文奧義.(『溫病條辨』, 앞의 책, 9쪽)

26) 王振坤 編著, 溫病條辨新解, 學苑出版社, 北京, 1995. 2쪽

27) 吳鞠通醫學全書, 400쪽

28) 朱彬의 序 : "余來京師獲交吳子鞠通, 見其治疾一以仲景爲依歸……, 非有得於仲景之深者不能.", "昔人謂仲景爲軒岐之功臣, 鞠通亦仲景之功臣也."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1708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터 분리하여 辨證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醫論이 정밀하지 못하고 입법이 완전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며, 吳又可도 溫病만을 전문적으로 논술했지만 역시나 不足한 점이 많다고 보았다. 오직 葉天士만이 溫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의 醫學 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여러 의안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까닭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29] 吳鞠通은 이처럼 훌륭한 葉天士의 醫學 사상이 後人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긴 끝에 葉天士 의안 중 溫熱病과 관련된 內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溫病條辨』을 저술한 것이다.[30]

『溫病條辨』이 葉天士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사실로 要約해 볼 수 있다. 첫째, 『溫病條辨』에 제시된 處方 중 절반 이상이 葉天士의 醫案에서 인용한 것이다. 王振坤은 이에 대해, 仲景方(20%), 創作方(20%) 이외에 나머지 50%이상이 모두 葉天士의 醫案에서 나온 것이며, 仲景方과 創作方 조차도 사실은 葉天士의 醫案에 포함되어 있어 葉天士가 자주 활용하던 처방이 대부분이라고 했다.[31] 결국 『溫病條辨』에 나오는 대부분의 處方은 葉天士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溫病條辨』의 많은 조문들이 葉天士의 『臨證指南醫案』에서 따온 것이다. 吳鞠通 스스로도 葉天士의 醫案을 정리하여 葉天士의 깊은 뜻을 闡發하는 것이 『溫病條辨』을 저술한 목적이라고 누차 강조하였고, 실제로 두 책의 內容을 비교해 보아도 『溫病條辨』의 조문과 유사한 內容을 葉天士의 醫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葉天士의 辨證理論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吳鞠通은 『溫病條辨』에서 三焦辨證과 衛氣營血辨證을 結合하였다. 衛氣營血辨證은 葉天士가 溫病의 診斷과 治療를 위해 제시한 辨證理論으로 吳鞠通은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즉 衛→氣→營→血의 傳變 순서와 "逆傳心包" 등 葉天士의 온병 전변 과정에 대한 인식[32]이 『溫病條辨』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三焦辨證에 있어서도, 三焦辨證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것은 吳鞠通의 『溫病條辨』이 분명하지만, 葉天士가 三焦辨證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仲景은 傷寒病을 먼저 六經으로 구분하였고, 河間은 溫熱病을 반드시 三焦로 구분하였다."(『臨證指南醫案·暑門·楊案』)[33], "여름의 暑病은 陽明에서부터 시작하므로 古人은 白虎湯을 主方으로 썼다. 후세의 賢人인 劉河間의 독창적인 의견은 여러 의사들의 생각을 크게 뛰어 넘었으니, '溫熱時疫을 치료할 때는 苦辛寒한 약을 위주로 투약해야 한다'고 했다."(『三時伏氣外感篇』)[34]

29) 『溫病條辨·凡例』 : "晋唐以來諸名家, 其識見、學問、工夫, 未易窺測, 聒豈敢輕率毁謗乎! 奈溫病一證, 諸賢悉未能透過此關, 多所彌縫補救, 皆未得其本眞, 心雖疑慮, 未敢直斷明确, 其故皆由不能脫却『傷寒論』藍本, 其心以爲推戴仲景, 不知反晦仲景之法. 至王安道始能脫却傷寒, 辨證溫病, 惜其論之未詳, 立法未備. 吳又可力爲卸却傷寒, 單論溫病, 惜其立論不精, 立法不純, 又不可從. 惟葉天士持論平和, 立法精細, 然葉氏吳人, 所治多南方證, 又立論甚簡, 但有醫案散見於雜證之中, 人多忽之而不深究." (『溫病條辨』, 앞의 책, 9쪽)

30) 『溫病條辨·上焦35條』注 : "惟葉氏心靈手巧, 精思過人, 案中治法, 絲絲入拘, 可謂匪衆善以爲長者, 惜時人不能知其一二; 然其法散見於案中, 章程未定, 淺學者讀之, 有望洋之歎, 無怪乎後人之無階而升也. 故本論摭拾其大概, 粗定規模, 俾學者有路可尋."(『溫病條辨』, 앞의 책, 37쪽)

31) 溫病條辨新解, 2쪽

32) 『外感溫熱篇』 : "溫邪上受, 首先犯肺, 逆傳心包","衛之後方言氣, 營之後方言血"(崔三燮, 朴贊國 편저, 溫病學, 成輔社, 1989. 208, 221쪽)

33) "仲景傷寒, 先分六經, 河間溫熱, 須究三焦."(葉天士, 臨證指南醫案,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344쪽)

34) "夏暑發自陽明, 古人以白虎湯爲主方, 後賢劉河間創意, 迥出諸家, 謂溫熱時疫, 當分三焦, 投藥以苦辛寒爲主."(崔三燮, 朴贊國 編著, 溫病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라고 하여, 비록 河間의 말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三焦辨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 "溫邪를 흡입하면 上焦가 먼저 받는다(溫邪吸入, 上焦先受)"[35], "코를 통해 흡수하면 반드시 먼저 肺를 침범하게 되는데, 곧 上焦病이다. 辛凉微苦한 약으로 치료한다."[36], "상초병이 낫지 않으면 中焦나 下焦로 옮겨간다(上焦不解, 漫延中下)."[37]는 等의 논술이 보이는데, 葉天士가 衛氣營血의 傳變 과정 뿐만 아니라 이미 上焦에서 中焦로, 中焦에서 下焦로 진행하는 傳變 과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吳鞠通이 『溫病條辨』에서 제시한 三焦辨證 이론과 다르지 않다. 吳鞠通은 三焦辨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溫病은 邪氣가 口鼻를 통해 침입하는데, 鼻氣는 폐에 통하고 口氣는 위에 통한다. 肺病이 逆傳하면 心包病이 된다. 上焦病이 낫지 않으면 中焦의 脾와 胃로 옮기고, 中焦病이 낫지 않으면 下焦의 肝과 腎으로 옮긴다. 上焦에서 시작해서 下焦에서 끝난다."[38]

여기에서 吳鞠通의 三焦辨證理論이 葉天士의 三焦辨證精神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학술적 特徵

1) 溫病의 분류 및 개념의 정립

(1) 溫病과 傷寒의 鑑別

吳鞠通은 溫病과 傷寒은 外感病의 兩大法文[39]으로 원래 전혀 다른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醫師들이 傷寒의 法으로 溫病을 治療하는 것은 모두가 王淑和에서부터 비롯된 잘못이라고 보았다. 王淑和가 『傷寒論』을 정리하면서 「傷寒例」 중에 모든 外感病을 섞어서 논술하면서 각각의 治法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後人들이 그 弊端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다.[40] 王淑和 이후 朱肱, 劉河間, 王安道, 喩昌, 吳又可 등이 溫熱病의 治法에 變化를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傷寒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傷寒의 범주를 탈피했다하더라도 그 醫論이 정밀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吳鞠通은 葉天士의 溫病理論을 바탕으로 歷代 醫家들의 見解와 자신의 경험을 結合하여, 溫病과 傷寒에 대해 發病機轉, 發病特徵, 傳變, 治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吳鞠通은 發病 機轉에 대해서, 傷寒은 邪氣가 皮毛를 통해 侵入하는데 足太陽膀胱經이 가장 먼저 邪氣를 받고, 溫病은 邪氣가 口鼻를 통해 侵入하는데 手太陰肺經이 가장 먼저 邪氣를 받는다고 했다.[41]

中焦篇에서는 邪氣가 侵入해서 傳變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42]

學, 成輔社, 1989, 267쪽)

35)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325쪽

36) "從鼻吸而受, 必先犯肺, 乃上焦病, 治法以辛凉微苦"(앞의 책, 334쪽)

37) 앞의 책, 344쪽

38) "溫病由口鼻而入, 鼻氣通於肺, 口氣通於胃, 肺病逆傳, 則爲心包; 上焦病不治, 則傳中焦, 胃與脾也; 中焦病不治, 卽傳下焦, 肝與腎也. 始上焦, 終下焦."(『溫病條辨』, 앞의 책, 60쪽)

39) 上焦 2條의 注에 "陰陽兩大法門之辨"이란 말이 나옴.(『溫病條辨』, 앞의 책, 13쪽)

40) 『溫病條辨·上焦1조』注 : "但叔和不能別立治法, 而敍於「傷寒例」中, 實屬蒙混, 以「傷寒論」爲治外感之妙法, 遂將一切外感悉收入「傷寒例」中, 而悉以治傷寒之法治之. 後人亦不能打破此關, 因仍苟簡, 千餘年來, 貽患無窮皆叔和之作俑, 無怪見駁於方有執、喩嘉言諸公也."(『溫病條辨』, 앞의 책, 12쪽)

41) 『溫病條辨·上焦2條』注 ; "傷寒由毛竅而入, 自下而上, 始足太陽 …… 溫病由口鼻而入, 自上而下, 鼻痛於肺, 始手太陰."(『溫病條辨』, 앞의 책, 13쪽)

42) 『溫病條辨·中焦1條』注(『溫病條辨』, 앞의 책, 60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傷寒의 邪氣는 毛竅를 통해 谿로 침입하는데, 谿는 肌肉의 분리 가운데 작은 것이다. 다시 谿에서 谷으로 들어가는데, 谷은 肌肉의 분리가 큰 것이다. 다시 谷에서 孫絡으로 들어가는데, 孫絡은 絡脈 가운데 지극히 가는 것이다. 다시 孫絡에서 大絡으로, 大絡에서 經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經이란 太陽經을 지칭하며, 太陽에서 출발해서 厥陰에서 끝난다."

"溫病은 邪氣가 口鼻를 통해 침입하는데, 鼻氣는 폐에 통하고 口氣는 위에 통한다. 肺病이 逆傳하면 心包病이 된다. 上焦病이 낫지 않으면 中焦의 脾와 胃로 옮기고, 中焦病이 낫지 않으면 下焦의 肝과 腎으로 옮긴다. 上焦에서 시작해서 下焦에서 끝난다."

이를 요약해 보면, 傷寒은 毛竅-谿-谷-孫絡-大絡-經(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의 순서로 傳變한다. 溫病은 口鼻를 통해서 肺나 胃로 들어가는데, 비정상적인 경우 肺病은 心包로 옮겨가는데 이를 逆傳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傳變을 順傳이라고 하는데, 上焦에서 中焦로, 中焦에서 下焦로 傳變한다. 傷寒은 皮毛를 통해 侵入하여 六經을 따라 傳變하며, 溫病은 口鼻를 통해 侵入하여 三焦를 따라 傳變한다.

그는 또 足太陽膀胱은 陽腑이고 寒邪는 陰邪이므로 傷寒은 陰邪가 人體의 陽氣를 損傷한 것이며, 手太陰肺는 陰臟이고 溫邪는 陽邪이므로 溫病은 陽邪가 人體의 津液을 損傷한 것이라고 보았다.[43] 病邪의 陰陽 속성이 서로 다르므로 發病 양상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證候 감별에 대해서, 吳鞠通은 『溫病條辨·上焦三條』에 "太陰이 溫熱의 邪氣를 맞아 병들면 脈이 緩하지도 緊하지도 않으면서 動數하거나 또는 좌우 寸部가 獨大하고, 尺膚가 뜨겁고 머리가 아프며 惡風이나 惡寒이 미약하게 있으면서 몸에 열이 나고 땀이 흐르며, 갈증이 있거나 또는 갈증이 없으면서 기침을 하고, 오후에 열이 심하다. 이름하여 溫病이라고 한다."[44]라고 하여, 溫病을 정의하였다. 아울러 실제 臨床에서 傷寒과 鑑別할 수 있는 症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위의 症狀 중 頭痛, 惡風寒, 身熱, 自汗 등은 傷寒中風에도 흔히 나타나는 症狀이므로 이것으로는 鑑別할 수 없다. 脈이 動數하여 緩하지도 緊하지도 않고, 간혹 渴症이 있거나 기침이 나며 尺膚가 뜨겁고 오후에 특히 熱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틀림없이 溫病이다.[45]

治法上에서도 吳鞠通은 傷寒과 溫病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傷寒은 人體의 陽氣가 損傷된 것이므로 辛溫, 甘溫, 苦熱한 성질의 藥物을 使用하여 人體의 陽氣를 구하고, 溫病은 人體의 陰液이 損傷된 것이므로 辛凉, 甘寒, 甘鹹한 성질의 藥物을 使用하여 陰液을 구해야 한

"傷寒由毛竅而谿, 谿, 肉之分理之小者; 由谿而谷, 谷, 肉之分理之大者; 由谷而孫絡, 孫絡, 絡之至細者; 由孫絡而大絡, 由大絡而經, 此經卽太陽經也. 始太陽, 終厥陰."

"溫病由口鼻而入, 鼻氣通於肺, 口氣通於胃, 肺病逆傳, 則爲心包; 上焦病不治, 則傳中焦, 胃與脾也; 中焦病不治, 卽傳下焦, 肝與腎也. 始上焦, 終下焦."

43) 『溫病條辨·上焦2條』注 : "太陽, 陽腑也, 傷寒, 陰邪也, 陰盛傷人之陽也. 溫爲陽邪, 此論中亦言傷風, 此風從東方來, 乃解凍之溫風也, 最善發泄, 陽盛必傷陰, 故首鬱遏太陰經中之陰氣, 而爲咳嗽、自汗、口渴、頭痛、身熱、尺熱等證. 太陰, 陰藏也, 溫熱, 陽邪也, 陽盛傷人之陰也."(『溫病條辨』, 앞의 책, 13쪽)

44) "太陰之爲病, 脈不緩不緊而動數, 或兩寸獨大, 尺膚熱, 頭痛, 微惡風寒, 身熱, 自汗, 口渴, 或不渴而咳, 午後熱甚者, 名曰溫病."(『溫病條辨』, 앞의 책, 14쪽)

45) 『溫病條辨·上焦三條』 注 : "頭痛, 惡風寒, 身熱, 自汗, 與太陽中風無異, 此處最足以相混, 於何辨之? 於脈動數, 不緩不緊, 證有或渴或咳、尺熱、午後熱甚辨之."(『溫病條辨』, 앞의 책, 1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고 보았다.[46] 이 때문에 溫病 初期에는 辛溫한 성질의 藥으로 發汗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銀翹散方論에서 "살피건대, 溫病은 汗法을 쓰지 말아야 하니, 發汗시키면 병이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질병이 생긴다."[47]라고 하고, 「中焦篇1條」注에서도 "溫病은 邪氣가 口鼻를 통해 침입하는데, …… 막 病邪를 받은 때에는 절대 辛溫한 약으로 그 陽氣를 발동시키면 안 된다."[48]라고 했다.

(2) 온병의 분류 및 정의

吳鞠通은 『溫病條辨』 上焦篇 首條[49]에서 溫病을 風溫, 溫熱, 溫疫, 溫毒, 暑溫, 濕溫, 秋燥, 冬溫, 溫瘧 등 9가지로 구분하고, 注에서는 溫病의 각 類型을 정의하였다.

風溫者, 初春陽氣始開, 厥陰行令, 風來溫也.

溫熱者, 春末夏初一陽氣弛張, 溫盛爲熱也.

溫疫者, 厲氣流行, 多兼穢濁, 家家如是, 若役使然也.

溫毒者, 諸溫來毒, 穢濁太甚也.

暑溫者, 正夏之時, 暑病之偏於熱者也.

濕溫者, 長夏初秋, 濕中生熱, 卽暑病之偏於濕者也.

秋燥者, 秋金燥烈之氣也.

冬溫者, 冬應寒而反溫, 陽不潛藏, 民病溫也.

溫瘧者, 陰氣先傷又因於暑, 陽氣獨發也.

이들 가운데 溫病, 暑病, 冬溫, 溫瘧, 風溫, 溫毒, 溫疫 等의 명칭은 이미 王淑和의 「傷寒例」[50]에 나타나며, 濕溫의 명칭은 『難經』에 처음으로 보이며, "春溫"의 病名은 郭雍의 『傷寒補亡論』[51]에 최초로 보인다. "伏暑"[52]나 "秋燥"[53] 등의 명칭 역시 『溫病條辨』이 저술되기 이전에 존재했다. "暑溫"도 그 명칭은 吳鞠通이 처음 使用하였지만, 그 病證 자체는 『內經』이나 『傷寒例』 등에 나오는 "病暑"[54], "暑病"[55] 等과 같다. 이로 볼 때, 吳鞠通은 溫病

46) 『溫病條辨·中焦1條』: "蓋傷寒傷人身之陽, 故喜辛溫, 甘溫, 苦熱, 以救其陽. 溫病傷人身之陰 喜辛凉甘寒甘鹹 以救其陰. 彼此對勘, 自可瞭然於心目中矣."(『溫病條辨』, 앞의 책, 60쪽)

47) "按溫病忌汗, 汗之不惟不解, 反生他患."(『溫病條辨』, 앞의 책, 16쪽)

48) "溫病由口鼻而入,……初受之時, 斷不可以辛溫發其陽耳."(『溫病條辨』, 앞의 책, 60쪽)

49) "溫病者, 有風溫, 有溫熱, 有溫疫, 有溫毒, 有暑溫, 有濕溫, 有秋燥, 有冬溫, 有溫瘧."(『溫病條辨』, 앞의 책, 12쪽)

50) 張仲景,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84. 88, 89, 99, 100쪽

51) 郭雍, 傷寒補亡論, -歷代中醫珍本集成四-, 上海三聯書店, 1990.
『傷寒補亡論卷18』의 「傷寒溫疫論」, 「溫病論」에 보임.

52) "伏暑"는 위의 9가지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溫病條辨』의 上中下焦篇에 伏暑의 篇目이 명시되어 있다. 吳鞠通이 伏暑를 9가지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은 그 病證 자체가 暑溫과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伏暑의 명칭은 송대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며, 明代에는 정식 病名으로 使用된 것으로 보인다.
『和劑局方·卷二』: "黃龍圓治丈夫婦人伏暑發熱作渴, 嘔吐惡心", "水侵丹治伏暑傷冷 …"
『醫學入門』: "伏暑卽冒暑久而藏伏三焦腸胃之間. 熱傷氣而不傷形, 旬日莫覺, 變出寒熱不定, 霍亂吐瀉, 膨脹中滿, 瘧痢煩渴, 腹痛下血等症."
『傷寒準繩』: "暑邪伏久而發者, 名曰伏暑."

53) 淸代 喩嘉言은 그의 著書 『醫門法律·秋燥論』에서 秋燥의 病機에 대해 자세히 논술하였다. 喩昌, 醫門法律-欽定四庫全書51, 大星文化社, 1995. 444~450쪽

54) 『素問·熱論』: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病暑"(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硏究院, 1985. 117쪽)

55) 王叔和 『傷寒例』: "中而卽病者名曰傷寒, 不卽病者, 寒毒藏于肌膚, 至春變爲溫病, 至夏變爲暑病. 暑病者, 熱极重於溫也."(張仲景,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84. 88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歷代 醫家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首條의 또 한가지 의의는 溫病의 범주를 크게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首條는 『難經·58難』의 "傷寒有五, 有中風, 有傷寒, 有濕溫, 有熱病, 有溫病"[56]과 대비되는 것으로, 『難經』에서 말한 溫病이 狹義의 溫病이라면, 『溫病條辨』에서 말한 溫病은 廣義의 溫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難經』에서는 傷寒의 일부이던 것이 『溫病條辨』에서는 傷寒 이외의 모든 外感病으로 그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

위 內容들은 溫病學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 완성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後世 溫病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현대 溫病學의 溫病 분류와 개념들은 모두 『溫病條辨』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溫熱과 濕熱을 구분

吳鞠通은 溫病을 濕邪의 有無에 따라 크게 溫熱類과 濕熱類로 구분하였다. 治法에 있어서도 濕熱, 溫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汪瑟庵도 "溫熱과 濕溫이 이 책의 兩大 줄거리이다(溫熱, 濕溫, 爲本書兩大綱)"[57]라고 말했다. 後世의 程宇光도 "吳鞠通은 葉天士의 학설을 열심히 따랐는데, 濕溫에 대한 논술이 특히 자세하다. 濕溫을 溫熱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溫病을 傷寒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하였다. 후학에게 길을 열어 보였으니 그 공이 위대하다."[58]라고 하여, 吳鞠通의 공적이 濕溫과 溫熱을 구분한 데 있다고 했다.

吳鞠通은 濕邪의 有無에 따라 溫熱과 濕熱을 구분하였는데, 風溫, 溫熱, 溫疫, 溫瘧, 溫毒, 冬溫, 秋燥는 대개 濕邪를 兼하지 않으므로 溫熱類 溫病에 속하며, 伏暑, 濕溫, 暑溫 등은 대부분 濕邪를 兼하므로 濕熱類 溫病에 속한다고 보았다. 伏暑와 暑溫을 濕溫과 함께 濕熱類로 분류한 것은 이들 暑病이 대개 濕熱을 兼하기 때문에 濕溫과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59]

吳鞠通은 溫熱類 溫病과 濕熱類 溫病의 治法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上焦三五條」에서 "暑病은 濕熱을 겸하는데, 暑病 중에서 熱에 치우친 것이 暑溫이다. 대부분 手太陰證이며 치료는 淸法이 마땅하다. 暑病 중에 濕에 치우친 것이 濕溫이다. 대부분 足太陰證이며 치료는 溫法이 마땅하다."[60]라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溫熱病은 淸法을 쓰고, 濕熱病은 溫法을 써야 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吳鞠通은 濕溫病에 대해서 세 가지 禁忌를 제시하였는데, 「上焦 43條」에 잘 나타나 있다.

> "頭痛, 惡寒, 身重, 疼痛이 있고 혀에 白苔가 끼고 갈증은 없으며, 脈은 弦細하면서 濡하고, 낯빛이 담황색이며, 가슴이 답답하고 배고픈 줄을 모르며, 오후가 되면 열이 오는 것이 흡사 陰虛證인 듯하며 잘 낫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濕溫이라 한다. 이런 증에 發汗

56)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1. 103쪽

57) 『溫病條辨』, 앞의 책, 81쪽

58) "吳鞠通力守葉氏說, 辨濕溫尤精, 謂濕溫不得與溫熱同治, 猶之溫病不得與傷寒同治, 開示后學, 厥功偉已." (吳鞠通 原著, 王士雄 選評, 葉子雨 評註, 增補評注溫病條辨-中國醫學大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3쪽 序文)

59) 上焦 35조에서 "暑兼濕熱"(『溫病條辨』, 앞의 책, 36쪽)이라 하고, 上焦 42조에서 "伏暑、暑溫、濕溫, 證本一源, 前後互參, 不可偏執."(『溫病條辨』, 앞의 책, 40쪽)이라 하고, 上焦 伏暑의 篇目 아래에 "按暑溫、伏暑, 名雖異而病實同, 治法須前後互參, 故中下焦篇不另立一門."(『溫病條辨』, 앞의 책, 35쪽)이라 하였다.

60) "暑兼濕熱, 偏於暑之熱者爲暑溫, 多手太陰證而宜淸; 偏於暑之濕者爲濕溫, 多足太陰證而宜溫."(『溫病條辨』, 앞의 책, 3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法을 쓰면 神昏, 耳聾이 생기며, 심한 경우 눈을 꼭 감고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攻下하면 설사를 심하게 하고, 滋潤한 약을 쓰면 병이 더 심해지고 낫지 않는다.[61]

먼저 濕溫病을 辛溫한 藥으로 땀을 많이 내면 濕邪는 풀리지 않고 도리어 濕熱이 上蒸하여 淸竅를 막아서 神昏이나 耳聾이 생긴다. 또 苦寒한 藥으로 攻下를 시키면 甚하게 泄瀉한다. 또 濕溫病을 陰虛로 誤認하여 滋潤하는 약을 쓰면 濕邪가 속에서 더 들러붙어 빠져나가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濕溫病에 汗法, 下法, 潤法의 사용을 禁止한 것이다. 이외에도 "濕屬陰邪, 其氣留連, 不能因汗而退, 故繼而復熱"(「中焦63조」注)[62], "若舌白滑, 不惟熱重, 濕亦重矣. 濕重忌柔潤藥, 當於濕溫例中求之, 故曰不可與淸營湯也"(「上焦30조」注)[63], "若舌苔白滑、灰滑、淡黃而滑, 不渴者, 乃濕氣蒸騰之象, 不得用淸營柔以濟柔也."(「中焦20조」注)[64], "溫病之兼濕者, 忌有喜剛"(「凡例」)[65] 등이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2) 입체적 辨證 방법의 확립

吳鞠通은 溫病의 病位와 발전 단계를 세분화하여 縱橫으로 交叉하는 입체적인 辨證體系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溫邪의 溫邪傳變規律에 대해 전면적으로 서술하여 縱的 傳變과 橫的 傳變을 제시하였다.

吳鞠通의 三焦辨證은 일단 上·中·下焦로 病位를 크게 구분하였는데, 이는 溫病의 발전 단계를 縱的으로 논한 것이다. 吳鞠通은 기본적으로 上焦病이 낫지 않으면 中焦로 발전하고, 中焦病이 낫지 않으면 下焦로 傳變한다고 인식하였다.[66] 上焦病은 주로 肺, 心包(心)의 病變으로 병정이 비교적 가볍고, 中焦病은 脾胃의 病變으로 병정이 重하며, 下焦病은 肝腎의 病變으로 병정이 가장 위중하다. 이는 病位의 深淺, 病程의 段階, 病情의 輕重을 上焦에서 下焦로 수직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도 『傷寒論』의 六經辨證이 橫的인 辨證體系라면,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은 縱的인 辨證體系라고 주장했다.[67]

吳鞠通의 三焦辨證은 病證을 단순히 수직적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 횡적인 구분을 더하였다. 횡적인 구분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같은 臟에서 橫으로 衛-氣-營-血의 방식으로 傳變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桑菊飮 方後 注文에 "二三日不解, 氣粗似喘, 燥[68]在氣分者, 加石膏、知母; 舌絳, 暮熱, 甚燥, 邪初入營, 加元參二錢, 犀角一錢; 在血分者, 去薄荷、蘆根, 加麥冬、細生地、玉竹、丹皮 各二錢; 肺熱甚, 加黃芩; 渴者, 加花粉"[69]이라 하여, 上焦 肺에서 病變이 衛分-氣分-營分-血分으로 발전하는 데 따른 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같은 부위에서 이를테면 상초(上焦) 장부끼리 전변하는 것이다. "肺病逆傳, 則爲心包"[70]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61) "頭痛惡寒, 身重疼痛, 舌白不渴, 脈弦細而濡, 面色淡黃, 胸悶不饑, 午後身熱, 狀若陰虛, 病難速已. 名曰濕溫. 汗之則神昏耳聾, 甚則目瞑不欲言, 下之則洞泄, 潤之則病甚不解."(『溫病條辨』, 앞의 책, 40쪽)
62) 『溫病條辨』, 앞의 책, 96쪽
63) 『溫病條辨』, 앞의 책, 35쪽
64) 『溫病條辨』, 앞의 책, 71쪽
65) 『溫病條辨』, 앞의 책, 11쪽
66) "上焦病不治則傳中焦, 胃與脾也; 中焦病不治則傳下焦, 肝與腎也; 始上焦, 終下焦."(『溫病條辨』, 앞의 책, 60쪽)
67) 『溫病條辨·凡例』 : "傷寒論六經, 由表入裏, 由淺入深, 須橫看. 本論論三焦, 由上及下, 亦由淺入深, 須竪看, 與 傷寒論爲對待文字, 有一縱一橫之妙." (『溫病條辨』, 앞의 책, 10쪽)
68) "燥"는 "邪"의 誤字인 듯하다.
69) 『溫病條辨』, 앞의 책, 18쪽
70) 『溫病條辨·中焦1條』 注 : "溫病由口鼻而入, 鼻氣通於肺, 口氣通於胃, 肺病逆傳, 則爲心包" (『溫病條辨』, 앞의 책, 60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세심한 用藥 원칙

吳鞠通은 『溫病條辨』에서 "이 책에서 중시한 것은 오직 病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착오가 없어야 하고, 用藥의 先後와 緩急은 이치에 합당해야한다는 것이다."[71]라고 하여, 정확한 辨證과 정확한 用藥을 강조하였다.

(1) 三焦用藥法의 확립.

吳鞠通은 『溫病條辨』에서 "治上焦如羽, (非輕不擧), 治中焦如衡, (非平不安), 治下焦如權, (非重不沈)."[72]이라 하여, 溫病에 대한 用藥原則을 제시하였다. 邪氣가 上焦에 있으면, 銀翹散이나 桑菊飮 같은 輕淸宣透하는 처방으로 心肺의 熱邪를 除去한다. 이 때 金銀花, 連翹, 豆豉, 桔梗, 薄荷, 桑葉 등이 주로 쓰이는데 모두가 그 기운이 가벼워서 위로 뜨는 성질이 있는 藥物이다. 藥物을 달일 때도 銀翹散의 경우 香氣가 날 때까지만 달이고 너무 오래 달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藥物의 輕淸한 기운을 取하고자 한 것이다.[73] 邪氣가 中焦에 있으면 白虎湯, 承氣湯, 三仁湯 등을 使用하여 腸胃의 熱의 식혀서 津液을 보존하거나, 脾胃의 濕熱을 除去하여 氣機를 소통시킨다. 이때 石膏, 知母, 黃芩, 黃連, 半夏, 蒼朮, 茯苓, 薏苡仁, 砂仁, 白豆蔻 등이 주로 쓰이는데 모두 脾胃의 機能을 調節하는 藥物이다. 邪氣가 下焦에 있으면 加減復脈湯, 大·小定風珠 등을 使用하여 肝腎의 陰精을 보충한다. 이 때 龜板, 鱉甲, 玄蔘, 鷄子黃, 阿膠, 海蔘, 地黃, 牡蠣 등이 주로 쓰이는데 모두 성질이 무거운 藥物이다.

이 같은 吳鞠通의 三焦用藥原則은 그 스스로가 비록 하간의 治療 원칙을 따른다고[74] 말했지만, 실제 內容을 살펴보면, 오히려 喩嘉言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듯하다. 喩嘉言은 『尙論篇·詳論瘟疫以破大惑』에서 "溫疫의 邪氣는 中道로 直行해서 三焦로 퍼진다. …… 上焦는 안개와 같으니 升發하여 邪氣를 몰아내면서 解毒을 겸하며, 중초는 漚와 같으니 소통시켜 邪氣를 몰아내면서 解毒을 겸하며, 下焦는 瀆과 같으니 물길을 터 邪氣를 몰아내면서 解毒을 겸해야 한다."[75]라고 하였는데, 제시한 治法이 吳鞠通과 거의 유사하다. 河間에게서는 喩嘉言과 같은 명확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病證을 治療하는 과정에서 上中下焦로 그 治法을 구분하여 서술한 정도이다.[76]

---

71) 『溫病條辨·凡例』: "是書着眼處, 全在認證無差. 用藥先後緩急得意."(『溫病條辨』, 앞의 책, 18쪽)

72) 『溫病條辨·治病法論』(『溫病條辨』, 앞의 책, 176쪽)

73) 【辛凉平劑銀翹散方】
連翹 一兩 銀花 一兩 苦桔梗 六錢 薄荷 六錢 竹葉 四錢 生甘草 五錢 芥穗 四錢 淡豆豉 五錢 牛蒡子 六錢
上杵爲散, 每服六錢, 鮮蘆根湯煎, 香氣大出, 卽取服, 勿過煮. 肺藥取輕淸, 過煮則味厚而入中焦矣. (『溫病條辨』, 앞의 책, 16쪽)

74) 『溫病條辨·上焦二條』 注 : "溫病由口鼻而入, 自上而下, 鼻通於肺, 始手太陰. 太陰, 金也, 溫者, 火之氣, 風者, 火之母, 火未有不克金者, 故病始於此, 必從河間三焦定論."(『溫病條辨』, 앞의 책, 132쪽)

75) "瘟疫之邪則直行中道, 流布三焦. …… 上焦如霧, 升而逐之, 兼以解毒 ; 中焦如漚, 疏而逐之, 兼以解毒 ; 下焦如瀆, 決而逐之, 兼以解毒."(喩昌, 尙論篇-欽定四庫全書51, 大星文化社, 1995, 19쪽)

76) "暴熱上喘者, 病在心肺, 謂之高喘, 木香金鈴子散 ; 上焦熱而煩者, 牛黃散 ; ……上焦熱, 無他證者, 桔梗湯. 有虛熱不能食而熱者, 脾虛也, 宜以厚朴白朮陳皮之類治之 ; 有實熱能食而熱者, 胃實也, 宜以梔子黃芩湯或三黃丸之類治之郁金柴胡之類亦是也. 有病久憔悴, 發熱盜汗, 謂五臟齊損, 此熱勞骨蒸病也, 瘦弱虛煩, 脹滿下血, 皆蒸勞也, 宜養血益陰, 熱能自退, 當歸生地黃或錢氏地黃丸是也."(『素問病機氣宜保命集·熱論第十四』, 劉守眞, 河間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8. 445쪽)
"仲景曰邪在上焦則吐, 邪在下焦則瀉, 邪在中焦卽吐且瀉."(『素問病機氣宜保命集·霍亂論第十八』, 앞의 책 45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 藥의 輕重

吳鞠通은 用藥時 病證의 輕重에 따라 用量의 多少를 調節해야 한다고 했다. 『溫病條辨·凡例』에서,

> "처방에 정해 놓은 분량은 늘리거나 줄여 쓸 수 있으니 대강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다. 모름지기 病證에 임하여 스스로 짐작해서 조절해야 한다. 대개 약은 반드시 病證에 맞아야 효과가 나타난다. 병은 위중한데 약을 가볍게 쓰면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고 도리어 의혹이 생긴다. 만약 병은 가벼운데 약을 무겁게 쓰면 멀쩡한 곳이 손상을 입게 되니, 또한 의사가 크게 경계해야 할 바이다."[77]

라고 하였다. 『溫病條辨』에 제시한 藥物의 用量은 그 대강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므로 臨床에서는 각 病證의 정황을 참작하여 알맞은 양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 吳鞠通의 醫案을 살펴보면, 동일한 處方의 경우에도 藥物의 使用量이 다 조금씩 다르다.

(3) 服用法

吳鞠通은 服用법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時時輕揚法"이나 "多備少服法"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時時輕揚法"은 藥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服用하여 약 기운이 上部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 것인데, 吳鞠通은 銀翹散의 服用에 이를 應用하였다.[78] 이 방법은 普濟消毒飮을 복용하는 방법에서 따온 것이다. 普濟消毒飮은 李東垣의 『東垣試效方·雜方門』 時毒治驗條에 나오는데, 그 服用 방법을 "時時服之"라고[79] 하였다. 普濟消毒飮은 頭面部 咽喉部의 解毒劑로 쓰는 약물이다. 이 약을 복용할 때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면 일부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가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病들지 않은 中下焦를 범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服用 회수를 늘리는 대신에 양을 줄여, 하루에 수 차례 나누어 조금씩 복용하는 방법을 取한 것이다. 吳鞠通도 銀翹散을 쓸 때에 病이 重한 경우는 네시간에 1번씩 服用하라고 했다[80].

吳鞠通은 汗法, 吐法, 下法 등을 쓰는 경우에 藥物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다가, 일정한 效果를 얻은 후에는 더 이상의 服用을 금지하였다. 이것이 多備少服法이다. 그는 『溫病條辨·凡例』에 "於攻伐之劑, 每用多備少服法."[81]이라고 하여, 攻伐하는 藥物을 使用할 때에 이 방법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大承氣湯은 "煮取三杯. 先服一杯, 約二時許, 得利, 止後服"[82]이라 하였고, 梔子豉湯은 "煮取二杯. 先溫服一杯, 得吐, 止後服"[83], 瓜蒂散은 "煮取一杯, 先服半杯, 得吐, 止後服"[84], 新加香薷飮은 "煮取二杯. 先服一杯, 得汗, 止後服"[85]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護胃承氣湯[86], 小承氣湯[87], 承氣

77) "方中所定分量, 宜多宜少, 不過大概而已, 尙須臨證者自行斟酌. 蓋藥必中病而後可. 病重藥輕, 見病不愈, 反生疑惑. 若病輕藥重, 傷及無辜, 又系醫者之大戒."(『溫病條辨』, 앞의 책, 10쪽)

78) 銀翹散方 注文 : 蓋肺位最高, 藥過重, 則過病所, 少用又有病重藥輕之患, 故從普濟消毒飮時時輕揚法.(『溫病條辨』, 앞의 책, 16쪽)

79) 李東垣, 東垣醫集, 人民衛生出版社, 2000. 北京, 515쪽

80) 銀翹散 方後 注文 : "病重者, 約二時一服, 日三服, 夜一服; 輕者, 三時一服, 日二服, 夜一服."(『溫病條辨』, 앞의 책, 16쪽)

81) 『溫病條辨』, 앞의 책, 10쪽

82) 『溫病條辨』, 앞의 책, 60쪽

83) 앞의 책, 22쪽

84) 앞의 책, 22쪽

85) 앞의 책, 32쪽

86) "煮取二杯, 先服一杯, 得結糞, 止后服"(앞의 책, 67쪽)

87) "煮取三杯. 先服一杯, 得宿糞, 止後服"(앞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合小陷胸湯[88], 新加黃龍湯[89], 茵陳四逆湯[90], 桃仁承氣湯[91], 抵當湯[92], 加減桃仁承氣湯[93] 등이 이 방법을 使用하고 있다. 대개 病情이 위중하고 病勢가 급한 경우에 使用하는 處方들이다. 이 때 使用하는 藥物은 대개 독성이나 藥力이 强하여 正氣를 損傷하기 쉬우므로 速戰速決해야 한다. 多備少服法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이다.

III. 結 論

吳鞠通은 『內經』에 근거하여 仲景의 법을 본받고 葉天士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 최초의 溫病 전문 서적인 『溫病條辨』을 저술하였다. 이런 점에서 『溫病條辨』은 吳鞠通 스스로 말했듯이 비록 溫病을 위해 저술된 책이지만, 또한 傷寒의 不足한 점을 보충한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溫病을 治療할 때는 『溫病條辨』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傷寒을 治療할 때는 여전히 仲景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94] 『溫病條辨』이 저술되어 溫病과 傷寒을 뚜렷이 구분함으로써, 溫病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짐은 물론, 傷寒에 대한 이해 또한 더욱 깊어지게 되었는데, 이 역시 『溫病條辨』이 傷寒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溫病條辨』이 갖는 醫學史的 가치는 이처럼 매우 크다. 王章忠은 그의 序文에서, 吳又可, 方中行, 喩嘉言, 葉天士 등이 비록 溫病에 대해 발명한 바가 없지 않지만 그 이론이 정밀하지 못하거나 너무 簡略하고, 오직 吳鞠通의 『溫病條辨』이 溫病의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다고[95] 비록 훗날 葉霖, 王孟英, 章虛谷 등 학자들이 吳鞠通의 『溫病條辨』을 비판하였지만, 『溫病條辨』이 溫病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溫病條辨』에서 언급한 溫病의 분류와 정의, 溫病과 傷寒의 鑑別, 溫熱과 濕熱의 구분, 입체적인 辨證方法, 각 病證 단계별 治療 原則, 用藥法, 服用法 등은 현대 溫病學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IV.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5.
2.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1
3. 張仲景,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84.
4. 李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이송실 통역, 臨床溫病學特講, 대성의학사, 2001.
5. 吳瑭, 『溫病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98.
6. 郭雍, 傷寒補亡論, -歷代中醫珍本集成四-, 上海三聯書店, 1990.
7. 王振坤 編著, 溫病條辨新解, 學苑出版社,

책, 63쪽)

88) "煮取三杯. 先服一杯, 不下, 再服一杯, 得快利, 止後服"(앞의 책, 64쪽)

89) "如服一杯卽得便, 止後服"(앞의 책, 69쪽)

90) "煮取二杯. 溫服一杯, 厥回, 止後服"(앞의 책, 83쪽)

91) "煮取三杯, 先服一杯. 得下, 止後服, 不知再服."(앞의 책, 129쪽)

92) "煮取三杯, 先服一杯. 得下, 止後服"(앞의 책, 129쪽)

93) "煮去三杯, 先服一杯, 候六時下黑血, 下後神淸渴滅, 止後服."(앞의 책, 쪽133)

94) "是書雖爲溫病而設, 實可羽翼傷寒. 若眞能識得傷寒, 斷不致疑瘟桂之法不可用; 若眞能識得溫病, 斷不致以辛溫治傷寒之法治溫病. 傷寒自以仲景爲祖, 參考諸家注述可也;溫病當於是書中之辨似處究心焉."(『溫病條辨 · 凡例』)

95) 吳鞠通 原著, 王士雄 選評, 葉子雨 評注, 增補評注溫病條辨 -中國醫學大成-, 1쪽
"若吳又可, 方中行, 喩嘉言, 葉天士諸賢, 雖於溫病頗有發明, 然非駁而不純, 卽簡而不備, 惟吳鞠通先生『溫病條辨』一書, 深得溫病之秘.----二千餘年之差謬, 至此而得其正宗, 未始非蒼生之福也."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95.
8.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明淸中醫全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9. 吳鞠通 原著, 王士雄 選評, 葉子雨 評註, 增補評注溫病條辨-中國醫學大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0.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11. 章虛谷, 醫門捧喝, 大星文化社, 1989
12.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13. 崔三燮, 朴贊國 編著, 溫病學, 成輔社, 1989
14. 喩昌, 欽定四庫全書51, 大星文化社, 1995
15. 劉守眞, 河間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 李東垣, 東垣醫集, 人民衛生出版社, 20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